



한반도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와 항시의 발전

Maritime Ex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Port cities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4th~6th Centuries CE

권오영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최영은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박소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II. 포상팔국의 전쟁과 남해안의 교류망

III. 남해안 교류를 담당한 주체의 구조와 성격

IV. 남해안에서 전개된 원거리 교섭의 실체

V. 맺음말

국문요약

삼국시대에 국가와 지역 사이에 전개된 교류에 대한 연구는 고대사와 고고학 분야에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근거리, 원거리 교류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경남과 전남지역을 통합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학계의 관행, 그리고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불리는 전쟁을 가야사 내부의 사건으로 축소시킨 선입견 등을 들 수 있다.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불린 전쟁은 가야권 내부의 국지전이 아니고 한반도 남해안의 여러 정치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참여한 전쟁이다. 여기에는 경남 연안만이 아니라 전남 연안의 정치체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양상은 동남아시아의 향시 및 향시국가 사이에 전개된 교류, 전쟁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비교사적, 비교고고학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4~6세기에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교섭과 전쟁의 중심에는 소가야가 있다. 소가야의 내부 구조는 고성 송학동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을 중핵으로 삼고 그 바깥으로 소가야 정치권, 소가야 문화권, 소가야토기 출토권(교류권)으로 확장되면서 밀도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층위의 권역에 향시가 배치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소가야는 경남 연안은 물론이고 전남 연안의 다양한 정치체들과 함께 일본열도의 규슈 및 긴키지역 정치체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였다. 일본열도에서 발견되는 한반도계 문물과 스에키의 출현,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왜계 고분, 왜계 문물의 존재가 그 증거이다.

주제어 : 소가야, 포상팔국의 난, 향시, 향시국가

I . 머리말

남해안지역의 여러 정치체들이 전개한 근거리, 원거리 교섭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대륙, 내륙의 그것에 비해 저조한 현상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김재홍 2021: 119~120). 규슈(九州)나 긴키(近畿) 등 일본열도산 문물이 한반도 남부에 유입된 상황과 그 정치적 맥락에 대한 관심에 비해 남해안의 여러 정치체 사이에서 진행된 교섭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오른다.

첫째, 가야고고학(가야사)과 백제(마한 포함)고고학(백제사)을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현행 학계 관행의 문제이다. 가야사 연구자들은 영남 서편의 상황에 대한 고찰을 자제하고,¹⁾ 마한-백제 연구자들은 연구 시각을 영남지역으로 넓히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남해안지역의 교류에 대한 이해는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교류의 경로상에 위치한 각각의 세력을 ‘가야’라는 이름 아래에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른바 ‘포상팔국의 난’이 중첩되면서 가야사만의 문제로 국한되어 버렸다. 그러나 남해안 교류의 역사는 소가야만의 역사가 아니고 가야사만의 문제도 아니다. 게다가 남해안과 한반도 동남부는 분절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도 개입되어 있다.

한반도 동남부의 해안을 따라 진행된 정치체 간 교섭의 상황은 시간대를 분명히 하기는 어렵지만, 수로와 탈해가 자주 마주치던 상황을 『三國史記』와²⁾ 『三國遺事』³⁾ 모두 전하고 있다. 탈해로 표현된 세력의 출발지가 어딘지는 모르나 김해의 수로와 만나서 경쟁하고, 결국 탈해가 경주로 들어가는 모습은 경주와 김해 사이에 긴밀한 교통망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진한 지역과 변한 지역이 지닌 물질문화의 공통성은 최근의 발굴조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진한인의 습속으로 묘사된 편두(扁頭)⁴⁾가 변한권역으로 이해되는 김해 예안리고분군에서 나타나는 현상(김두철 외 2020)도 진한과 변한을 분절적으로 이해하지만 않으면 이해가 된다.

한편, 탈해를 키운 阿珍義先의 거주지인 阿珍浦를 감포 부근에 비정하는 견해가

1) 다만, 고령을 비롯한 가야의 고분문화가 호남 동부지역에 전해지거나, 소가야, 아라가야, 대가야산 물품이 호남 지역으로 유입되는 양상에 대한 관심은 낮지 않은 편이다.

2)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 元年.

3) 『三國遺事』卷1 紀異 第1, 第四 脫解王.

4)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兒生, 便以石厭其頭, 欲其扁. 今辰韓人皆扁頭.”

옳다면 김해에서 감포에 이르는 연안해로도 상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신라 파사왕대에 濟州伐國(안강)과 悉直谷國(삼척)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수로가 나서는 양상을 더해 보면 경주와 김해의 긴밀한 관계를 새삼 확인하게 되며 김해-경주-안강-삼척으로 이어지는 남해안과 동해안의 연결 고리가 완성된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김해에서 창원, 함안, 고성, 사천으로 이어지는 연안해로가 나타나게 된다. 최근 이 지역에서 고고학적 발굴성고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발견이 연속되고 있다. 특히 고고학 연구자들이 주도하여 고성 내지 소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여러 정치체, 신라, 백제(영산강유역 포함), 왜 등 다양한 정치체들과 전개한 교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하승철 2014; 2018; 2022). 바다 세계는 현재의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 구분과는 무관하다. 전남의 순천, 여수, 고흥, 해남, 나주로 이어지는 세계는 경남의 연안에서 진행되던 교류의 연장된 공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의 글에 모두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교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하는 것보다는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몇가지 사실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Ⅱ. 포상팔국 전쟁과 남해안의 교류망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열전 勿稽子傳, 『삼국유사』 물계자전의 기사를 토대로 진행된 이른바 ‘浦上八國의 亂’에 대한 연구는 가야사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주제이며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 글에서 이를 다시 열거하고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포상팔국 관련 기사 및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사료 및 선행연구(김재홍 2021)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점은 남해안 일대 지역 정치체 간의 분쟁에 신라가 엮여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주와 김해 사이에 전개되는 교섭의 연장선이다. 이 사건이 전개된 시점에 대해서는 3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부터 4세기, 5세기, 심지어 6세기 이후로 보는 견해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선석열 1997; 백승옥 2019).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삼국사기』 초기 기사

[표 1] 포상팔국의 난 관련 사료 모음

①-1. 신라 내해이사금 14년(209), 가을 7월에 포상팔국이 가라(加羅)를 공격할 것을 모의하자, 가라 왕자가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 ①-2. 포상의 여덟 나라가 함께 아라국(阿羅國)을 치기로 하니, 아라의 사신이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삼국사기』 열전 물계자). ② 가라 왕자가 신라에 구원을 청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 ③ 왕이 석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6부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가라를 구원할 것을 명하였다. 이들이 포상팔국의 장군을 격살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6,000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④ 내해이사금 17년(212), 봄 3월에 가야(加耶)가 왕자를 볼모로 보내왔다. ⑤-1. 내해이사금 17년(212), 보라국, 고자국, 사물국 등 8국이 힘을 합쳐 변경을 공격하였다. 왕은 태자 나음과 장군 일벌 등에게 명하여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들과 싸우도록 하니, 8국이 모두 항복하였다(『삼국유사』 물계자). ⑤-2. 이사금이 왕손 나음에게 이웃의 군과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게 하니, 마침내 8국의 군대를 대패시켰다(『삼국사기』 물계자).
⑥-1. 3년 후 골포, 칠포, 고사포의 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갈화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구원하고, 세 나라의 군대를 대패시켰다(『삼국사기』 열전 물계자). ⑥-2. 골포국 등 3국의 왕이 각각 병사를 거느리고 갈화를 공격해왔다. 왕이 친히 병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막자, 3국은 모두 패하였다(『삼국유사』 물계자).

의 기년을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개별 연구자들이 자신의 가야사 像, 신라사 像에 맞추어서 포상팔국 관련 기사를 해석한 데에 있다. 이런 까닭에 이 사건을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라 3~5세기의 사정이 누적된 것으로 보려는 입장이 오히려 타당해 보인다(김재홍 2021: 129).

포상팔국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문헌사료를 이용하는 고대사 연구자 대부분은 3세기 대, 혹은 3세기 말~4세기 초로 보고 있지만(전덕재 2010; 정상희 2018; 백승옥 2019; 김양훈 2020), 본고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논자들의 공통적인 입론 근거가 3세기 후반에 구야국, 혹은 금관가야 세력의 약화를 상정하지만,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조사 성과에서 드러나듯이 오히려 3세기 후반부터 금관가야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3세기 중엽 당시의 모습을 반영하는 『삼국지』 진변한 사회의 모습이 포상팔국 전쟁과 무관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전란이 이미 진행된 후이거나, 혹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읽히지 않는다. 일반적인 國의 수장보다 위상이 높아 ‘加優呼’하는 臣智가 존재하는 김해와 함안의 상대적 우위,⁵⁾ 그리고 고성지역 정치체로

5)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蹶支漬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 김해의 신지는 拘邪秦支廉, 함안의 신지는 安邪蹶支라고 불렀다.

추정되는 古資彌凍國의 존재가 확인될 뿐이다.

세 번째, 4세기 중엽 경 백제 근초고왕이 가야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되는 『일본서기』 신공기 49년 기사 역시 포상팔국 전쟁의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는다.⁶⁾ 이 기사에 등장하는 많은 정치체 중에서 안라와 가라, 신라를 제외하면 포상팔국 전쟁의 주역들은 보이지 않는다.

네 번째,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경주 시내 고분군의 우열을 비교한다면 김해의 경주에 대한 구원 요청은 4세기 후반, 혹은 5세기 이후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소가야의 중심 지역인 고성에서조차 소가야양식 토기의 출현은 5세기 이후를 기다려야 하므로 그 이전에 고성의 고자국이 주축이 된 포상팔국 전쟁은 상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남해안 네트워크의 중심은 4세기 무렵까지는 김해, 5세기 이후로는 여러 정치체의 개별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5세기 후반 이후에는 고성이 그 중심이 된다(김재홍 2017). 고성과 그 일원에서 고총 및 왜계 고분의 등장, 나주·영암 등 영산강 중·하류역에서 웅관고분의 대형화와 왜계 문물의 증가 현상은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여실히 증명되는 4세기 이전 김해 주도 교역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이유로 본고에서는 포상팔국의 전쟁을 4세기 말이나 5세기 이후에 전개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 후 6세기 전엽까지 고성 송학동고분군에서 보이는 압도적 우월성은 고자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영도한 경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포상팔국 전쟁은 1회도 아니고(김재홍 2021), 참여국 내지 주체도 동일하지 않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관련 기사를 종합할 때,⁷⁾ 209년(포상팔국), 212년(보라, 고자, 사물 등 팔국), 그 3년 후인 215년(골포, 칠포, 고사포 등 삼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논자에 따라 두 번의 전쟁, 혹은 세 번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215년의 전역은 울산으로 비정되는 갈화 침공전이었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과 결과, 참여 세력 등은 조금씩 변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포상팔국이 공격한 가라는 김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신라와 동맹을 맺을 정도로 가까운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관건인데, 함안보다는 김해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신가영 2023: 168). 왜냐하면 함안(안라)의 전성기는 김해보다 한발 늦

6) 물론 이 기사의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일단 4세기 중엽(369) 설을 따랐다.

7) 이하의 연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에 그렇게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은 5세기 이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상팔국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선 포상팔국에 고령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가야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신가영 2023: 176)에 동의한다. 사료에 나타난 이들을 가야 연맹체로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가야의 여러 구성분자는 포상, 즉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포상팔국은 엄연히 ‘가야연맹체’, ‘소가야연맹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포상팔국에 가야권에 속하는 남해안 정치체만이 아니라 서남해안의 정치체를 포함시켜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보라의 위치를 나주나(노중국 2005) 삼포천 유역으로 보는 견해(김경림 2020)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부정적인 입장은 나주는 너무 멀며(백진재 2015), 포상팔국은 가야의 구성 분자들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주를 비롯한 영산강유역권의 정치체가 남해안을 거쳐 함안, 김해, 경주지역 정치체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는 선입견에 기초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사천 월성리유적의 초기철기시대 목관묘에서는 다뉴세문경과 銅鉤가 부장되었는데 한반도 중서부, 특히 완주 갈동유적과의 유사성이 지적되었다(이창희 2022: 50~51). 거제 아주동 1485번지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12)처럼 호남계⁸⁾ 토기와 하지키(土師器)가 다량 출토되는 양상을 볼 때 바다를 통한 경남과 전남 해안 지역 정치체 간 교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쓰시마(對馬島)에서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으로 진입하는 해로를 하루에 40~50km 정도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복원한 연구는 “쓰시마-거제 장목-고성만-사천 선진리-여수만-고흥 길두리-고흥 야막-해남 방산리-해남 용두리-안좌도-함평 돌머리-영광 법성포-채석강-금강 입구”로 이어지는 해로를 상정하고 있다(이은석 2022: 118~119). 이 루트는 현재까지 조사된 고분, 특히 왜계 고분들을 연결한 경로이기도 하다.

이 경로에 접한 정치체 중 일부가 포상팔국과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남과 고흥 등 전남 남해안의 중요 유적을 제외하고 사천에서 김해 사이만 보더라도 “사천 방지리-늑도-고성 송학동-내산리-마산 현동-창원 도계동-석동-김해 관동리와 망산도-봉황대와 대성동” 등으로 이어지는 유적들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유적 1개소를 하나의 國으로 설정하기보다 복수의 유적, 즉 복수의 港市를 하나의 향시국가로

8) 마한계라는 용어 대신 호남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경기, 충청지역이 아닌 호남지역 산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고성 송학동고분군 축조세력과 내산리고분군 축조세력을 별도의 國으로 보아 포상팔국에 고성지역 정치체 두 개를 설정하기보다(이동희 2021), 두 세력을 각각 하나의 향시에 대응시키고 이를 합친 향시국가로서 고자국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남해안지역의 정치체 사이의 관계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것이야말로 신라사회와 가야사회의 차이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김재홍 2021: 146). 내륙의 국경 개념과 달리 바다를 통해 점점이 이어지는 교류의 양상은 동남아시아 향시와 향시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다.⁹⁾ 포상팔국 전쟁은 전형적인 향시국가 간 분쟁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권오영 2017: 270~273).

Ⅲ. 남해안 교류를 담당한 주체의 구조와 성격

한반도 남해안을 무대로 하는 교류의 주체 세력은 해안을 따라 형성된 정치체들이다. 특히 연안 해로의 거점에 위치하면서도 내륙 교통의 결절지인 해안에서 등장, 성장한 정치체들을 사료에서는 ‘浦上’의 나라들로 표현한 것이다. 현재는 이들을 ‘향시’ 혹은 ‘향시국가’라는 틀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권오영 2017, 2019; 이동희 2021; 정선운 2023, 2026; 안홍좌 2023; 김양훈 2026).

그중 고성지역은 古自國 등 정치체의 이름이 전해지고, 각 단계별로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존재 양태를 보여주는 유적의 발견이 두드러져서 상위의 향시, 혹은 향시국가가 소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이동희 2021: 155~156). 고성지역에서 발전한 고대 정치체의 명칭은 古資彌凍國(『三國志』 魏書 東夷傳), 古史浦國(『삼국사기』), 古自國(『삼국유사』), 久嗟나 古嗟(『日本書紀』)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지만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古資彌凍國이 나오는 것을 보면 3세기 단계에 이미 고성지역 정치체의 발전이 현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를 반영하는 고성지역의 유적으로는 동외동유적(국립진주박물관 2003)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은 초기철기시대부터 기원후 4세기 무렵까지 지속된 복합유적으

9) 대표적인 향시국가로는 베트남 중부 해안을 무대로 발전하였던 임읍(林邑: Champa), 부남(扶南: Funan), 낭야수(狼牙脩: Langkasuka) 등을 들 수 있다.

로서, 패총·야철지·분묘·주거지·고상건물지·의례유구·환호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성격으로는 방어시설을 갖춘 고지성 취락으로 보는 견해(소배경 2023)와 祭場의 기능을 강조한 견해(이동희 2023)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른 단계 고자미동국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유적임은 분명하다.

한편, 최근 발굴조사가 진행된 만립산유적(삼강문화유산연구원 2026)에서도 초기철기시대의 취락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소가야의 5~6세기대 토성으로 알려진 만립산토성 내부에서 취락과 온돌, 부뚜막 등 생활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자미동국 이른 단계의 양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동외동유적과 만립산유적은 고성읍 일대를 중심으로 한 내만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일대에 고성지역의 이른 시기 정치체, 즉 고자미동국을 구성하던 여러 읍락, 취락 중 가장 중요한 국읍적 위상을 갖춘 세력이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자국과 함께 포상팔국의 일부(사료 5-①)로 등장하는 史勿國의 터전인 사천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 유적의 변화 양상을 개괄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다. 주거구역, 묘역, 제의공간 등이 포함된 복합 유적인 이금동유적과 덕곡리고인돌군이 대표적이다. 초기철기시대에는 현재의 사남면 일대의 방지리 환호 취락, 월성리 묘역과 옛 삼천포 일대의 늑도 취락, 향촌동유적 등이 있어서, 2개의 유적군으로 설정할 수 있다(이성주 2022: 26). 두 개의 유적군은 일단 사물국을 구성하는 2개의 읍락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천만 내만부에 위치한 방지리 환호취락은 기원전 4세기 말~기원 전후한 시기에 이르는 복합유적으로 주거지, 무덤, 구상유구, 수혈, 다수의 주혈군, 환호, 패총 등이 모여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07). 시간적으로는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와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로 구분된다.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분묘 형식이나 수혈 주거지 형태로 보아 송국리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월성리유적은 방지리유적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초기철기시대 무덤 가운데 1호묘에서 다뉴세문경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사천 늑도유적은 초기철기시대 사천만 일대의 고고학적 양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적이다. 유적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3세기~기원후 1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이창희 2026: 225). 패총·주거지·수혈·분묘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된 복합유적으로, 다수의 외래계 문물이 확인되어 고대 해상교역의 거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역 뿐 아니라 취락, 분묘 등을 통해 거주민 집단의 계층성과 구조, 네트워크 등에

주목하고 있다(이주호 2025; 이창희 2026). 취락과 분묘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사천 늑도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 계층적 구조와 교역망을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음을 논한 연구(이창희 2026), A·B 지구의 세형동검을 보유한 상위 유력자의 존재로서 취락의 중심집단을 추정한 연구(이주호 2025) 등이 있다.

이상에서 확인되듯, 사천지역은 이른 단계의 유적들이 고성지역보다 많이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삼국지』 단계, 혹은 원삼국기에 해당되는 목관묘와 목곽묘, 그리고 4세기 이후의 토성 등 지역 정치체의 성장을 가늠할 만한 유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늑도유적이 지난 교역항으로서의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 늑도를 사물국의 중심으로 보는 견해(장혜금 2015; 장혜금 2017)도 있지만, 이 좁은 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행위는 육지의 배후 거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이성주 2022: 36).

『삼국지』 단계부터 현저했던 고성, 사천지역의 발전은 5세기 대 이후 소가야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5세기 대 이후 모습에서 양 지역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천지역은 선진리, 향촌동 등의 왜계 고분을 제외하면 현지 세력의 묘제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고성지역은 송학동고분군을 위시한 고총의 발전이 현저하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자국이 소가야로 표현된 정치체 그 자체이거나, 고성을 소가야의 중심으로 보는 견해에 대부분 동의한다(김규운 2010). 본고에서도 역시 고성을 소가야의 중심지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근거는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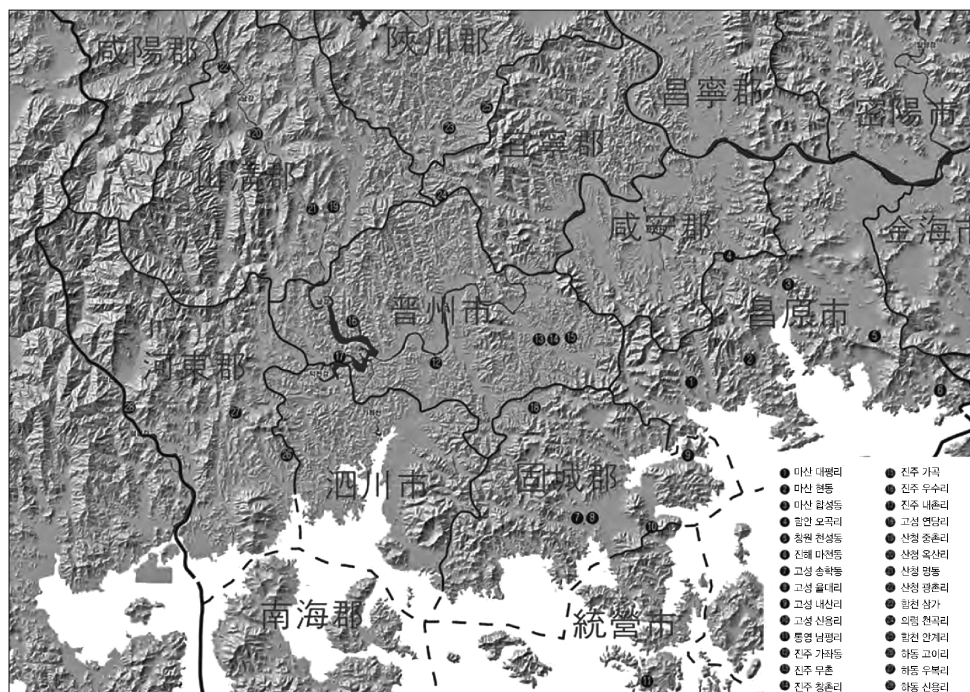
그런데 문제는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이 소가야의 범위를 넘어선 광역이란 점이다(그림 1, 여창현 2022: 100~101).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 범위도 넓기는 하지만 영남 일부 지역에 집중하는 데에 비하여, 소가야양식 토기는 호남과 충남까지 확산이 확인된다. 심지어 서울 풍납동토성에서도 소가야양식 토기가 여러 점 발견된 바 있다(권오영 2002). 물론 이 경우는 정치체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는 무관하고 토기의 장거리 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 상황을 활용하여 소가야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선 “소가야양식 토기는 고성,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섬진강 이서 일부, 운봉고원 일부, 마산, 칠원, 진례 등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 이 모든 지역을 소가야의 경역이라 부르는 어렵지만 소가야의 문화권이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견해가 있다(이한상 2021: 89). 이 견해는 “소가야 토기 출토 공간이 곧 소가야 경역은 아님”을 인정

하고 있으며, 소가야 토기 분포권을 소가야 문화권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 몇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소가야 토기 분포권과 소가야 문화권은 동일한 것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소가야 경역을 소가야 토기 분포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한편, “남해 연안과 내륙지역의 경남 서남부를 포괄적으로 소가야연맹체, 혹은 서남부가야연맹체로 설정하고 진주, 산청, 의령, 함천, 하동, 사천, 고성, 통영, 창원을 소가야권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그림 1). 이 견해에서는 5세기 2/4분기부터 562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여창현 2022: 101). 소가야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가장 광역의 이해로 인정된다. 그 근거는 역시 소가야양식 토기의 발생과 분포이다. 그런데 소가야연맹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다시 소가야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토기 양식만으로 정치적 연맹체의 공간을 설정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서였을까?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소가야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진다. 토기양식의 공통성, 유사성만으로 소가야라는 비교적 광역의 정치체를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소가야 토기 분포권과 소가야 문화권, 소가야권이 다른 층위의 의



[그림 1] 소가야양식 토기 출토 유적의 분포양상(여창현 2022)

미라고 한다면 토기만이 아니라 소가야를 규정하는 다른 문화적 요소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분 축조의 큰 원칙, 즉 “先 분구 축조 - 後 매장주체부 마련”이란 현상, 그리고 복수의 매장주체부가 존재하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정인태 2020). 고성 송학동(기월리), 울대리(국립진주박물관 1990), 내산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2005) 고분군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¹⁰⁾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고분은 통영 일부지역에서도 확인되었는데, 통영 남평리 10호분(동서문물연구원 2009), 통영 팔천곡고분군(경상문화재연구원 2022)이다. 통영 남평리 10호분은 5세기 중엽의 분묘로, 봉토 내에 4기의 목곽묘가 조성된 다곽식 분구묘이다(동서문물연구원 2009). 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된 분구묘 중 이른시기에 해당한다.¹¹⁾ 통영 팔천곡고분군은 6세기 중엽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원지형을 정리한 후에 정지층 및 구축토를 성토하고, 그 다음에 매장주체부를 조성한 분구묘이다. 이는 고성 내산리고분군 40호분, 44호분 및 고성 기월리고분군 1호분과 유사한 양상이다(경상문화재연구원 2022: 106).

“先 분구 축조-後 매장주체부 마련”이란 현상을 고려하면 소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은 앞의 현상에 충실한 고성과 통영 對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소가야 토기 분포권 안에서도 분구 축조 방식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스펙트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소가야토기 분포권과 소가야문화권, 소가야(정치)권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성은 고자국에 해당되고, 고자국이 중심이 된 서부 경남의 여러 정치체를 합쳐서 소가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조영제 2018: 4)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 중 고성의 송학동고분군 피장자가 고자국 후신의 최고 수장이자 나아가 소가야권 최고 수장임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자국과 대비되는 사물국의 터전인 사천지역에서는 5세기 무렵, 중심고분군 내지 고층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포상팔국 전쟁 이후 경남 남해안 정치체들의 소멸이 그 원인이라는 견해(이성주 2022: 37)가 있다. 그러나 동일하게 포상팔국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나 5세기 중엽 이후 6세기 전

10) 연당리고분군의 경우 오래전에 조사되어 봉토식인지 분구식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과거의 봉토(분구) 조사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내산리고분군과 같은 반지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장한 수혈식석곽, 수평구연호와 고배 등이 소가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 통영 남평리의 분구묘는 소가야권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분구묘로,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축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정인태 2020). 남평리 10호분의 돌발적인 출현은 해상교류에 유리한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산강유역의 분구묘 등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정인태 2018: 47~48). 최근 이 단계의 초대형급 분구묘로 송학동 14호분이 조사되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반까지 짧은 시간 내에 고층화를 이루는 고성지역의 사례를 보면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사실 사천지역에서는 늑도유적 이후 지역 정치체의 발전을 보여주는 유적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5세기 이전에 속하는 고분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오재진 2022: 81~82). 고층의 부재를 포상팔국 전쟁 패전으로 설명하려면 그 직전에는 포상팔국 전쟁 참여자에 걸맞는, 나름 현저한 발전을 보이는 정치체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6세기 이후 선진리, 향촌 등 왜계 고분의 출현 양상을 보면 사천지역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보인다. 하지만 이 변화의 주체가 6세기까지 온존하던 사천지역 정치체인지, 아니면 고성 집단의 성장에 의해 사천지역이 영향을 받아 겪게 된 변화인지는 분명치 않다. 사천지역에서 보이는 4~5세기대의 자료 공백 문제, 그리고 고성지역과의 상호 역학관계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여기에서 참고할 자료가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항시국가인 부남국과 임읍국의 상황이다. 최근 옥 에오(Oc Eo) 문화 관련 발굴조사 성과를 모은 연구물(베트남 사회과학출판사 지음, 권오영 · 대한문화재연구원 옮김 2025)이 발간되었는데, 항시국가 내부의 상황은 해안가의 항시와 내륙부의 정치 중심지, 혹은 산림자원 생산지의 결합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항시인 옥 에오 유적은 안 장(An Jiang) 성에 위치하는데 바 테(Ba The) 산 구역과 평지구역으로 양분되어¹²⁾ 그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바다에 더 가까운 끼엔 장(Kien Jiang) 성의 넨 쭈어(Nen Chua) 유적은 옥 에오 유적과 많은 공통점을 지녔으면서도 종교적 신앙, 망자에 대한 숭배 및 화장과 관련된 신전 등이 집중됨을 볼 때 부남국의 기능은 중요 지역별로 분담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임읍도 마찬가지로 정치 중심인 짜 끼에우(Tra Kieu), 종교 중심인 미 썬(My Son), 그리고 항시인 호이 안(Hoi An) 등 빅 3가 각각 제 역할을 하며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가야 내부에서 고자국과 사물국은 동일한 위상과 기능을 지닌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분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천지역에 왜계 고분이 집중됨을 고려하면 왜와의 해상교역에서 중요한 항시 기능이 사천지역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천지역의 4~5세기 고분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한 가설적 견해이므로 더 이상의 추론은 자제하고자 한다.

고자국은 6세기 대에 가면 3개의 중요 집단, 즉 송학동(기월리), 내산리, 연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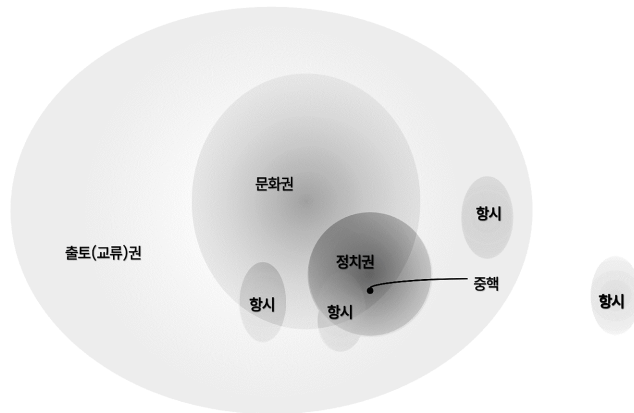
12) 각 구역 내에는 복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박순발 · 이상길 1994) 고분군 축조세력이 주도하였고 그중에서도 송학동(기월리) 세력이 가장 우위에 섰을 것이다. 송학동(기월리) 세력이 소가야의 중핵, 그리고 '先 분구-後 매장주체부 축조'라는 분구묘 축조(조신규 2014), 주구의 존재, 세장한 수혈식석곽을 공유한 내산리, 연당리고분군 축조세력은 소가야 정치체의 구성분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곽식, 세장방형 석곽, 소가야양식 토기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통영 팔천곡고분군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통영이지만 오히려 고성의 중심에 더 가까우며¹³⁾ 묘제의 유사도가 매우 높으므로 역시 소가야 정치체의 한 구성분자로 볼 수 있다. 사천의 경우는 중전 소가야연맹체의 일원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5세기 무렵의 유적이 거의 전무하고 6세기부터 왜계 고분이 등장하므로 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 정치체 내부에서 약간 다른 위상을 지녔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곽으로 소가야 정치체에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많은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내륙의 진주, 산청, 의령, 합천 일부, 그리고 해안가의 통영, 거제 일부 등도 고성이 주도하는 소가야 정치체의 외곽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이 공간은 소가야문화권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범위보다 더 넓은 광역의 공간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종종 발견될 경우 이는 소가야 정치권, 소가야 문화권도 아닌, 소가야 토기의 원거리 이동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고성 of 송학동고분군을 소가야의 중핵, 고분문화와 토기양식을 공유하는 주변지역을 소가야 정치권, 소가야 토기가 주류를 점하는 소가야 문화권, 소가야토기가 간헐적으로 출토되는

소가야 토기 출토(교류)권 등으로 차등화시킬 수 있다(그림 2). 소가야의 향시는 단일하지 않아서 중핵에 인접한 향시, 소가야 정치권에 속하는 향시, 소가야 문화권에 속한 향시, 소가야 토기 출토(교류)권에 속한 향시,



[그림 2] 소가야의 공간에 대한 개념도

13) 유적은 현재 행정구역 상 고성군과 통영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도면은 조선시대까지 고성군의 관할 하에 있었다(경상문화재연구원 2022).

소가야 외곽에 존재하는 항시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소가야다운 물질문화라는 것도 중핵에서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밀도가 낮아지고 주변의 다른 정치체, 예를 들어 함안이나 고령의 요소가 혼입될 것이다. 이에 비례하여 소가야 내부의 정치적 동질성은 줄어들 것이다.

Ⅳ. 남해안에서 전개된 원거리 교섭의 실체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원거리 교섭의 양상은 5세기 후반 이후 6세기 전반에 걸쳐 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되는 외래계 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남해안 일대에서 고총, 다양한 계통의 외래계 유물과 묘장제의 존재가 현저한 지역으로는 해남과 고흥, 사천, 그리고 고성을 꼽을 수 있으며(그림 3), 외래계 유물의 계통은 주로 왜(倭)와 백제에서 구해진다.

해남의 경우 지역 토착 수장의 존재가 4세기 무렵 북일면 독수리봉고분에서 확인되고(마한문화연구원 2025), 외래계 유물은 전방후원형 고분이나 왜계 석곽묘 등에 집중된다. 해남지역에서 외래계 고분이 축조되고, 외래계 유물이 등장하는 것은 외도 1호분에 부장된 삼각관혁철관갑 등을 통해 보았을 때 이미 5세기 중엽 이전으로 올려볼 수 있다(김낙중 2015: 64). 외도 1호분을 시작으로 왜계 요소가 반영된 묘제가 북일면 일대에서 6세기 이후까지 지속되며, 방산리 장고봉고분이 그 정점을 이룬다. 한편, 북일면 일대뿐 아니라 옥천천 일대의 만의총 1호분(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에서는 백제 중앙의 색채가 짙은 동천, 금모 은제곡옥, 시원형의 은제 관식 등과 함께 신라계 서수형 토기, 왜계 동경 등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되어, 이 고분을 축조한 세력이 원거리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모습을 보여준다.

고흥반도에서도 5세기 전엽 경부터 외래계 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고흥 야막고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전남대학교박물관 2015) 등 왜계 석곽이 그 예이다. 이 고분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삼각관혁철관갑 등 왜계 갑주가 부장되었으며, 안동고분의 경우 백제 중앙에서 사여한 금동관, 금동신발도 함께 부장되어 있어 피장자의 남해안 교류에서의 역할 및 복합적인 정체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고흥반도 남부권에서 외래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은 백제-왜 교섭에 의한 교통망 재편의 결과로 해석된 바 있다(오동선 2023).



[그림 3] 남해안지역 왜계고분의 분포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는 사천 선진리, 향촌동 II-1호분, 거제 장목고분, 의령 운곡리 1호분, 경산리 1호분 등이 왜계 고분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고분들이 분포하는 공간은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르면 ‘소가야 정치권’에 해당된다. 이 중 거제 장목고분을 제외하면 대개 고분군을 이루고 있고 재지계 토기가 부장된다는 점에서 그 피장자 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김준식 2015, 2023). 사천 선진리고분은 해남 장고봉고분, 고성 송학동 1-B호분 1호 석실과 구조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있어 ‘장고봉식’(홍보식 2011), ‘송학동-장고봉식’(김낙중 2012) 등으로 설정되기도 하므로 남해안 원거리 교섭의 연결망을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남해안의 연안해로를 통한 원거리 교섭에서 왜를 위시한 일본열도의 정치체도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 왜계 고분의 구조와 형태가 규슈지역의 그것과 유사함을 볼 때, 북부 규슈에 소재하던 정치체들에게 소가야 정치권이 우선적인 교섭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가야가 추진하던 국제 교섭의 최종적인 대상은 규슈지역의 정치체가 아니라 긴키의 야마토(大和) 정권이었을 것이다. 오사카 남부에서 스에키(須惠器)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영산강유역 토기류와 함께 소가야 토기의 존재 및 그 영향이 계속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웃한 사천과 달리 고성의 경우 외래계 유물과 묘장제는 지역 최고 위계의 무덤인 송학동고분군에 집중된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피장자, 즉 소가야 최고 지배층은 가야의 여러 정치체, 신라와 왜, 백제 중앙과 영산강유역에서 유래한 물품이 집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존재였음이 분명하다(여창현 2018; 이동희 2021).

왜나 영산강유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고성지역에서 출현하는 시

점은 송학동 1-B호분, 내산리 34호분 등 횡혈식석실묘의 출현, 즉 6세기 이후로 보아 왔다(서현주 2021: 119). 그런데 최근 송학동 14호분이 발굴조사되고, 석곽 내에서 삼각관혁철판갑과 왜계 대도, 철촉 등이 출토되면서 그 시점이 5세기 중엽 경으로 상향되었다(삼강문화재연구원 2024). 소가야양식 토기의 출현도 5세기 1/4분기로 적극 상향 조정하는 견해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김규운 2018: 92).

따라서 6세기 이전, 5세기 대에 이미 고성지역에 외래계 문물이 유입되었음은 분명하다. 송학동 14호분에서 처음 출토된 백제식 껌쇠의 존재는 목관의 결구방식과 형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자료이다. 매장시설 현장에서 조립하여 석곽이나 석실 내에 안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조립한 목관 내에 시신을 모시고 이를 운구하는 백제식 목관과 장제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종전에는 소가야 권역에 귀금속제 장신구와 금공품이 이입되는 것은 대가야계가 먼저이고, 520년대 이후에 백제계와 신라계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이한상 2021: 105), 백제의 영향이 좀더 이른 시기부터 포착된 점도 의미가 있다. 결국 소가야의 해상 활동은 6세기대가 아닌 5세기 무렵부터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소가야의 고분 문화가 내륙에 위치한 가야 고분 못지 않게 영산강유역의 고분문화와 상통하는 현상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하승철 2014). 고성, 해남,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고분에서는 분구 墓石의 존재가 자주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영산강유역, 해남, 고성지역 고분이 왜계 고분과 모종의 관계가 있음(김낙중 2021: 57)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 송학동 1호분과 14호분에서 보이는 주구와 하니와(埴輪)형 토제품의 수립 역시 가야권역에서는 매우 드문 왜계 요소로서 영산강유역과 소가야가 공통적이다. 고분에 부장되거나 제기로 사용되는 토기 기종 중 개배와 유공 광구소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역시 영산강유역과 소가야, 그리고 왜이다.

영산강유역과 소가야 고분문화의 유사성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 싶다. 우선 포상팔국 전쟁과 같은 항시국가 간의 분쟁이 언제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기보다는, 바다를 통한 남해안 정치체 사이의 교류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시국가와 포상팔국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해안과 규슈, 간키로 이어지는 해상 교류에서 전남과 경남 연안의 정치체들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 다음은 ‘가야 문화는 하나다’라는 허상의 분쇄일 것이다. 흔히 가야연맹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맹신하여 내륙 지역 가야 여러 정치체와 해안의 가야 정치체의 문

화적 공통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부 경남 해안가의 소가야 문화는 경북 내륙 대가야 문화와 유사한 점 못지 않게 호남 동부, 특히 여수-순천-광양지역 정치체의 문화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가야와 마한의 구분, 포상팔국이 모두 가야 정치체일 것이라는 추론에서 벗어나 남해안 여러 정치체들의 공통성과 교섭의 내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공통성은 항시 혹은 항시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할 것이다.

결국 ‘영산강유역-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북부 규슈-왜’로 이어지는 해상교류를 바다와 항시라는 시각에서 조명하면 그 중간에 위치한 고흥과 해남, 사천지역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규슈와 긴키 지역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영산강유역산 문물은 소가야가 중간에서 매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고흥이나 해남의 정치체도 나름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영산강유역과 소가야의 고분문화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엄존한다. 왜계 요소가 영산강유역, 해남, 고흥, 고성, 함안, 김해 등에서 제각각 다르게 발현되는 것이다. 전방후원형이라는 분형은 오직 해남을 포함한 영산강유역권에서만 확인된다. 하지키는 김해지역 출토량이 압도적이면서(조성원 2021: 141~143) 고성 동외동유적에서도 적지 않게 출토되었다. 스에키는 고성 송학동, 산청 생초 등 소가야양식 토기 분포권에 다수 존재한다(조성원 2021: 145).

한편 내륙의 진주, 산청 지역은 소가야양식 토기유통권이면서 소가야문화권에 포함되는데 진주 수정봉-옥봉이나 산청 중촌리에서 보이는 고총의 발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항시국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해안의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내륙의 농업, 산림지대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동남아시아의 고대 항시국가들은 대개 내륙의 농경지나 산림에 배후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농산물의 공급은 물론이고, 산림에서 채취한 향신료, 상아, 물소 뿔 등 교역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권오영 2019). 소가야가 포함된 원거리 교섭에서 주로 다루던 상품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내륙에서 생산 및 채취하는 물품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송학동고분군 축조 세력과 내륙의 중촌리고분군 축조세력은 상호 보완적 처지였을 것이다(김규운 2018: 95).

소가야를 비롯하여 남해안 지역 정치체들의 내부 구조를 살펴볼 때, 해안가의 항시만이 아니라 내륙의 농업, 산림자원 생산 기지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시 사이에 전개된 교섭만이 아니라 항시와 항시국가 내부의 구조를 참고할 때 연안의

소가야정치체와 내륙의 소가야문화권 사이의 관계를 해명할 실마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한반도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삼국시대 원거리 교섭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한과 진·변한, 백제와 가야 등의 정치체들을 분절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바다로 이어지는 해안가 정치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을 고려한다면 동남아시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항시, 항시국가론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일출과 함께 출발하여 일몰 전에 정박할 수 있는 거리마다 기항지가 마련되고 결국 항시로 발전하는 모습은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도 볼 수 있다.

복수의 항시가 결합되어 발전한 항시국가는 삼국시대에 다수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포상팔국의 난”이라는 전쟁의 주체들은 가야만이 아니었을 것이며 남해안에 분포하는 다양한 항시와 항시국가들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고성을 무대로 성장한 고자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을 무대로 널리 확산된 소가야양식 토기, 일본 긴키에서 스에키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가야양식 토기의 높은 비중 등이 그 근거가 된다.

국내 학계에서는 소가야의 공간을 규명하기 위하여 소가야양식 토기를 대상으로 논의의 진행하였지만 여러 가지 개념이 복잡하게 섞이면서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이 글에서는 고자국의 핵심, 소가야 정치권, 소가야 문화권, 소가야토기 출토권(교류권)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다소 도식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소가야의 내부구조를 고려하여 핵심에서부터 동심원적인 파장을 그리면서 밀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결국 소가야가 중심이 된 원거리 교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야사의 한정된 틀을 벗어나서 동남아시아 항시 및 항시국가에 대한 비교사적, 비교고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 이 글은 2024년 10월 8일 경남 고성에서 개최된 제1회 소가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4~6세기의 교류”라는 글을 토대로 대폭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日本書紀』

강산문화연구원, 2021, 『고성 내산리 고분군 -40·44·46호분-』.

경남발전연구원, 2007, 『사천 방지리 유적 I -초기철기시대-』.

경상문화재연구원, 2022, 『통영 팔천곡 고분군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고흥 야막고분』.

국립진주박물관, 1990, 『고성 올대리 2호분』.

_____, 2003, 『固城 東外洞 遺蹟』.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고성 내산리 고분군 I』.

_____, 2005, 『고성 내산리 고분군 II』.

권오영, 2002, 「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 『백제연구』36,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_____, 2017, 「고대 동아시아의 항시국가와 김해」, 『가야인의 불교와 사상』, 주류성.

_____, 2019, 『해양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세창출판사.

김경립, 2020, 『保羅國의 형성과 변천』, 『지역과 역사』47, 부경역사연구소.

김규운, 2010, 「5~6세기 小伽倻式 土器 設定」, 『한국고고학보』76, 한국고고학회.

_____, 2018, 「고고자료로 본 소가야의 권역과 변천」, 『한국고대사연구』92, 한국고대사학회.

김두철 외, 2020, 『가야 사람 풍습: 편두』 2019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4, 사회평론아카데미.

김낙중, 2012,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서 횡혈식석실묘의 수용 양상과 배경」, 『한국고고학보』85, 한국고고학회.

_____, 2015,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51, 호남고고학회.

_____, 2021, 「영산강유역권과 고성지역 고분의 축조 방식 비교」, 『고성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사회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김양훈, 2020, 「3세기 포상팔국전쟁 이후 남부가야제국 동향」, 『지역과 역사』46, 부산경남역사연구소.

_____, 2026, 『가락국 국가형성과정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재홍, 2017, 「고대 南海 島嶼의 유적과 특성」, 『한국학논총』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_____, 2021, 「삼국 초기 海上 英雄과 국가의 성격 -영웅시대의 설정-」, 『한국학논총』5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준식, 2015,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 被葬者の 성격과 역할」, 『야외고고학』23, 한국문화유산협회.

_____, 2023, 「가야 속의 왜계 문물의 현상과 과제」, 『동아시아의 열린 공간, 가야 학술대회』,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자료집.

노중국, 2005, 「가야의 대외교섭 -3~5세기를 중심으로-」, 『加耶의 海上勢力』,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자료집.

동서문물연구원, 2009, 『통영 남평리유적』.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 『해남 만의총 1호분』.

마한문화연구원, 2025,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고분군』.

박순발 · 이상길, 1994, 『고성 연당리 고분군』, 경남대학교박물관.

백승욱, 2019, 「문헌자료로 본 泗川 史勿國」, 『로컬리티인문학』22.

백진재, 2015, 「加耶諸國의 對倭交渉과 浦上八國戰爭」, 『지역과 역사』37, 부경역사연구소.

베트남 사회과학출판사 지음(권오영 · 대한문화재연구원 옮김), 2025, 『옥에오 문화 2017-2020』, 진인진.

삼강문화재연구원, 2024, 「고성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14호분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2차)」.

삼강문화유산연구원, 2026, 「고성 만림산 토성 내 매장유산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서현주, 2021, 「고성지역의 고대 영산강유역과 왜계 토기 고찰」, 『고성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사

- 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 선석열, 1997, 『浦上八國의 阿羅國 침입에 대한 考察』, 『가라문화』14,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 소배경, 2023, 『남해안의 高地性聚落과 環境』, 『고성 동이동유적』, 삼강문화유산연구원.
- 신기영, 2023, 『「포상팔국」 전쟁과 가야와 신라의 관계 변화』, 『한국고대사연구』111, 한국고대사학회.
- 안홍좌, 2023, 『탁순국의 성격』,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 여창현, 2018,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변천과 특징』, 『가야고분군Ⅲ』가야고분군 연구총서 4권,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 _____, 2022, 『통영 남평리유적』, 2022 가야사 기획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 오동선, 2023, 『백제의 서남해안지역 장악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고흥지역 고분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29, 한국고고학회.
- 오재진, 2022, 『삼국시대 사천의 고고학적 양상』, 『사천 사물』,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
- 이동희, 2021, 『고성 내산리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 『영남고고학』91, 영남고고학회.
- _____, 2023, 『제장(祭場)으로 본 고성 동이동유적』, 『영남고고학』97, 영남고고학회.
- 이성주, 2022, 『사천 사물국과 관계망』, 『사천 사물』,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 이은석, 2022, 『삼국시대 연안 항로와 섬』, 『섬(島)의 고고학』, 제31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 이주호, 2025, 『사천 늑도유적 취락 연구 -취락경관과 구성집단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101, 영남고고학회.
- 이창희, 2022, 『삼한시기 사천의 고고학적 양상』, 『사천 사물』,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 _____, 2026, 『사천 늑도유적과 해상교섭 네트워크의 형성』, 『영남학』9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이한상, 2021, 『고성지역 소가야묘 출토 금공품 검토』, 『고성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 장혜금, 2015,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7, 『변한 소국의 해양성과 이주』, 『Homo Migrants』16, 이주사학회.
- 전남대학교박물관, 2015,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 전덕재, 2010, 『勿稽子의 遯隱과 그에 대한 평가』,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3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정상희, 2018, 『포상팔국 전쟁의 개전(開戰)시기와 전쟁양상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110, 한국역사연구회.
- 정선운, 2023, 『고고자료를 통해 본 加耶의 港市國家論』, 『한국고고학보』129, 한국고대사학회.
- _____, 2026, 『「항시국가론」의 이론적 검토와 가야의 「항시」』, 『중앙고고연구』49, 중앙문화유산연구원.
- 정인태, 2018, 『소가야권 고분 축조기법 검토-대형봉토분, 분구묘를 중심으로-』,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_____, 2020, 『고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를 통해 본 소가야권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대형 봉토분과 분구묘를 중심으로-』, 『문물연구』38, 동아시아문물연구소.
- 조성원, 2021,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 『가야인, 바다에 살다』, 가야 해양문화 공동연구.
- 조신규, 2014, 『삼국시대 고성지역 분구묘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제, 2018, 『소가야의 고분문화』,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하승철, 2014, 『전남 서남해지역과 가야지역의 교류 양상』, 『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 전남문화재연구소 연구총서1, 해안.
- _____, 2018, 『전남 마한·백제와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58, 호남고고학회.
- _____, 2022, 『5~6세기 고성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대외관계』, 『동아시아고대학』67, 동아시아고대학회.
- 홍보석, 2011,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황혈식석실의 구조와 계통』,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원문화사.

Maritime Ex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Port cities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4th–6th Centuries CE

Kwon, Oh-You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Young-Eun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So-Yeol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interactions that developed between states and regional politie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While interregional exchange has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in both ancient history and archaeological study, compar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hort- and long-distance networks that operated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ituation can largely be attributed to the academic tendency to examine the Gyeongsangnam-do and Jeollanam-do regions separately, as well as to the prevailing assumption that the conflict known as the “Rebellion of the Eight Port Polities (Posang Palguk)” was merely an internal event within the Gaya polity.

The conflict referred to as the “Rebellion of the Eight Port Polities” was not a localized war confined to the Gaya sphere but rather a large-scale conflict involving multiple polities distributed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over an extended period. In addition to coastal polities in present-day Gyeongsangnam-do, it is highly probable that polities along the Jeollanam-do coast also participated in this conflict. These circumstances exhibit notable similarities to the exchanges and warfare that developed among port cities and port polities in Southeast Asia, highlighting the need for comparative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approaches.

Sogaya occupied a central position in the diplomatic interactions and military

conflicts that unfolded along the southern coast between the fourth and sixth centuries CE. The internal structure of Sogaya may be conceptualized as a series of concentric spheres centered on the group responsible for constructing the Songhak-dong tumuli in Goseong. Beyond this core lay the Sogaya political sphere, the Sogaya cultural sphere, and the distribution sphere of Sogaya pottery, representing broader networks of interaction whose intensity gradually diminished with distance. Port cities were likely situated throughout each of these territorial and interactional zones.

Sogaya maintained active relations not only with diverse coastal polities in Gyeongsangnam-do and Jeollanam-do but also with polities in the Kyushu and Kinai regions of the Japanese Archipelago. Evidence for these exchanges includes the discovery in Japan of material culture originating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mergence of Sueki ware, as well as the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of Japanese-style tombs and artifact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extensive maritime networks linking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Japanese Archipelago during this period.

Key words : Sogaya, Rebellion of the Eight Port Polities(Posang Palguk), Port city, Port polity